

“광주는 민주·인권·평화 도시”

광주전남전법단, 광주시 ‘UN 인권도시’ 추진 적극 지지



광주전남전법단은 2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1 세계인권도시포럼' 및 'UN 인권도시' 추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인권도시 만들기 광주전남불교전법단이 지지 입장을 밝혔다.

광주전남불교전법단(단장 도제, 이하 전법단)은 2월 18일 광주 불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가 추진하는 ‘2011 세계인권도시포럼’ 개최 및 ‘UN 인권도시’ 추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진 스님(광주 광덕사 주지) 등 13명의 단원스님들이 참여했다. 스님들은 “광주는 역사적으로 의병활동, 광주학생항일운동 및 5·18민주화운동 등 인류의 보편적 덕목인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충실히 실현해 온 도시”라며 “광주시의 2011 세계인권도시포럼 개최 및 UN 인권도시 추진에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 전법단은 “여러 국가의 문화

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해 다문화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며 “2011 세계인권도시포럼 개최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문화적 차이에 대한 관심을 증시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현재 광주시는 ‘세계인권도시포럼’ 개최와 관련해 시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의회 윤봉근 의장은 18일 임시회 폐회사에서 “세계인권도시포럼과 관련된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집행부가 의회 동의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오만한 처사”라며 사업시행 중단을 요구했다.

시와 의회가 갈등을 빚는 사안에 대해 전법단 관계자는 “광주는 ‘인권’을 상징하는 가장 적합한 도시

다. 인문과학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다”라며 광주시의 입장을 지지했다.

한편, 전법단은 3월 2일 오후 7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다문화 가정 후원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한다. 음악회는 전법단의 공식적인 첫 사업으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행사의 수익금 전액을 다문화세대 지원금으로 사용한다.

음악회는 불교음악과 다문화음악, 국악 등이 어우러진 무대가 펼쳐진다. 행사에는 성마 스님의 바라춤, 천음음악단, 자연 스님, 이복순 가야금 병창, 범능 스님, 헤뜨는 다문화 어린이합창단, 광주전남불교연합합창단, 이정숙 등이 참여한다. (062)385-1311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운사 부도전에서 2월 24일 기산 스님의 부도탑 제막식이 봉행됐다.

기산 스님 선운사 부도전 봉안

선운사, 환속 논란 대립에 ‘부도전 운영규칙’ 제정

호랑이 입승으로 명성을 떨쳤던 재기당 기산 스님의 부도탑 제막식이 2월 24일 선운사 부도전에서 봉행됐다.

문도인 스님은 “후학들에게 스님에 대한 추억을 회상하고 스님의 수행정신을 마음에 새기고자 부도탑을 모시게 됐다”며 “효행의 실천이며 의를 다한다는 의미로 세대 지원금으로 사용한다.”

한편, 기산 스님의 부도탑 건립을 반대하는 입장과 문도들의 대립에 대해 선운사 운영위원회는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대중의 화합을 위해 기산 스님 부도탑을 선운사 부도전에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운사 운영위원회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향후 ‘부도전 운영규칙’을 제정해 선운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결의했다.

기산 스님은 22교구부사 대흥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2000년 분한신고 미필로 2002년 1월 조계종 승적부에서 제적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영산작법은 불교의식이자 전통예술”

광주 법륜사 주지 월인 스님



광주 법륜사 주지 월인 스님(사진)은 도심 속에 불교전통의식대학을 세우고 불교의식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월인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광주 서구 도심 속 법륜사는 남도 지역의 중요한 영산작법 교육장이다.

월인 스님과 영산작법 인연은 1967년 스님이 11세 동진출가하면서 부터다. 스님은 선암사에서 대중생활을 하면서 당시 어른스님들에게 자연스럽게 불교의식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후 스님은 봉서사 영산작법 보존회와 봉원사 일승 스님으로부터 본격적인 불교의식을 공부했다. 이후 월인 스님의 불교의식은 점차 전문화됐다.

그 후 광주전남지역에 영산작법을 전파하기 위한 모임으로 1993년 전통불교영산회가 창립됐다. 호산 스님, 원명 스님, 혜령 스님 등 20여 스님들이 모여 시작한 영산회는 이제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발한 활동과 교육을 하는 불교단체가 됐다.

“현재 광주에서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교 전통의식은 우리의 세계적인 문화자산입니다. 의식(儀式) 전문 교육기관은 스님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우리 문화

자산을 접할 수 있어 한국전통불교문화를 대중화하는데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월인 스님은 전통불교영산회 회원들과 함께 5·18행사 등 광주전남지역의 행사에서 전통의식을 선보이며 불교의식 및 전통문화의 대중화의 꿈을 펼쳐가고 있다.

스님에게는 대중화를 위해 무엇 이든 다 하는 중요한 원칙이 있다. “영산작법은 불교의식이자 전통예술차원의 문화입니다. 일반인들이 작법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스님들이 불교의식의 전통을 이어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월인 스님은 작년 법륜사 내 법륜범용불교대학을 개교했다. 스님이 주석하는 법륜사는 최근 사찰불사가 완료돼 충분한 강의실과 수업환경을 갖추게 됐다. 월인 스님은 강주(講主)에 안정 불교대학에서 의식을 강의하는 상진 스님을 모셨다. 새롭게 개교한 학교에 대한 소문에 작년부터 40여 대중들이 모여 공부하고 있다.

스님에게는 불교전통의식 외에 문인화 그리기 실력도 뛰어나다. 어려서부터 익혀온 문인화 그리기 실력은 전국대회를 비롯해 광주광역시전, 전남도전, 무등대전 등에서 35회 수상한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다. 월인 스님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법륜사를 서구의 중심 사찰이자 문화포교의 장소로 활용하려는 포부도 밝혔다.

“무등산을 끼고 있는 동구에 비해 광주 서구는 상대적으로 포교에 취약합니다. 앞으로 법륜사를 서구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변모시키려고 합니다. 불교전통의식 외에도 지역민들이 문인화도 배우는 호남 시민들의 문화 발상지가 될 것입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아내 떠나고 식당만 이용 했는데”

홀몸 남자 어르신 요리에 도전

전주 서원노인복지관(관장 원행, 금산사 주지)은 남자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리강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관은 배우자를 잃은 남자 어르신들이 직접 강좌 개설을 요청해와 강좌를 개설하기로 했다. 강좌는 3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복지관 경로식당에서 2시간 동안 실습 위주로 진행하게 된다.

장은중 어르신(70)은 “7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주로 식당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복지관 부관장 보연 스님은 “앞으로 어르신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일 복지관 경로식당에서 2시간 동안 실습 위주로 진행하게 된다.

장은중 어르신(70)은 “7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주로 식당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복지관 부관장 보연 스님은 “앞으로 어르신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국립광주博, 명·청 회화전

기획전시실에서 3월 27일까지

중국 남종화의 전통 화맥을 잇고 있는 광주에서 명·청시대 중국 회화의 흐름과 시대정신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원복)은 오는 3월 27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명·청 회화전을 개최한다. 전체 전시 작품은 98점으로 3개 주제로 구성된다.

박물관은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 △불교전시 유물의 개편을 포함한 상설전시 기능강화 △지역별 특별전시회 개최 △수요자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운영 △음악회, 어린이날 신나는 박물관 여행, 우리문화 한마당,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 가족영화 감상회 개최 △야간 개장 활성화 및 토요일 화마당 운영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박물관은 201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 △불교전시 유물의 개편을 포함한 상설전시 기능강화 △지역별 특별전시회 개최 △수요자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운영 △음악회, 어린이날 신나는 박물관 여행, 우리문화 한마당,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 가족영화 감상회 개최 △야간 개장 활성화 및 토요일 화마당 운영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원칙부터 바로 세우겠다”

광주사암聯 회장 현지 스님 추대



현지 스님(왼쪽)은 전제 40여 사찰이 참여한 가운데 신규사찰 16개를 제외한

행부와 봉축 기획단 선출과 관련된 내용을 신입회장에 위임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제 40여 사찰이 참여한 가운데 신규사찰 16개를 제외한

26개의 회원사찰이 추대형식으로 회장을 선출했다. 회장 선출은 찬성 19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결의됐다.

현지 스님은 “봉축기획단 구성이 조금 늦었지만 이달 안에 발족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축제의 원년’으로 행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엄문도 합동 추모제 봉행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는 2월 18일 화엄문도 합동 추모제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원로의 원명 스님, 선등선원장 현산 스님, 종삼 스님 등 70여 화엄문도 스님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헌다례, 부도탑 참배 순으로 진행됐다. 명선 스님은 “화합 정신하는 화엄문도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스님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헌다례, 부도탑 참배 순으로 진행됐다. 명선 스님은 “화합 정신하는 화엄문도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아름다운 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팔각접등

만월등

종등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윤장대 인등

용학사 목련관 위패

연등 자동 승강장치 -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 안산 월강사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98원/kwh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